



성기영 아가씨 | 작가, 작곡가

| 침묵의 주

여섯 살 때의 어느 겨울밤. 곤히 자던 제 귀에 어디선가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롱한 종 소리와 어우러진 차임벨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집 주변 어느 교회였던 듯합니다. 그 소리에 홀리듯 잠에서 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른 새벽, 창문 바깥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이어지는 부드러운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곡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은은하게 공명하는 울림 안에서, 어린 마음에도 지극히 성스러운 어떤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이윽고 음악 소리는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저는 음악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침묵 속에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만난 성가입니다.

하루 종일 전축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피아노를 접했습니다. 초등부 주일학교에 들어간 저는 곧 성가대와 인연을 맺어 오르간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흥이 나서 성가를 부르길라도 하면, 사람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하품을 했습니다. 지금도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정말 부럽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여전히 저는 오르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성체 후 묵상 시간에 오르간은 작은 소리로 묵상 곡을 연주하지요. 저는 종종 성가 풍의 멜로디를 즉흥 연주하곤 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그걸 지어서 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그 곡들을 바쳤습니다.

그 뒤 대학 시절 이후에는 성당에 발길을 끊기도 했습니다.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며 마음은 냉담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쓰라린 실패로 심란하기 이를 데 없던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다시 빈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홀로 앉아 있던 저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에 지었던 묵상곡의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 노래에 가사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성가인 '침묵의 주'라는 곡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뒤 미사곡을 작곡하고 생활성가 밴드인 '성밴드'에 참여하며 성음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빈 성당에 앉아 있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침묵 중에 감실의 붉은 불빛을 쳐다보노라면, 오래전 어느 밤에 아이의 심금을 울리던 영감적인 차임벨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천상의 음악은 지상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아름답겠지요?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저는 결코 슬프지 않을 겁니다.



총고해가 뭔가요?

총고해란 한 개인이 일생 동안 또는 일정한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한 것이거나 어떤 특별한 주제와 관련한 개인사를 고해성사를 통해 개방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본 사람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다시 소급해서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고백은 했지만 그것을 과장이나 축소하여 고백했다면 다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총고해 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총고해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께 대한 신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글_「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